용산구 이태원동

배우 조인성, 올해도 스크린·브라운관 통해 활약 이어간다



1998년 지오지아 모델로 데뷔한 조인성은 중·고등학생 시절, 뚜렷한 이목구비와 타고난 외모로 유명세를 떨쳤다. 당시 학교 선생님들도 "교실에서도 광채가 났고 여학생들이 줄줄 따라다닐 정도였다"고 말할 정도였다.

어린 시절 조인성은 한화이글스의 팬이 되면서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 초등학생 때 야구부에 들어가 3년간 활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특출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야구선수의 꿈을 일찌감치 접었다. 조인성이 배우를 꿈꾸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 정우성이 출연한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를 보면서부터다.

조인성은 1999년 드라마 '점프'에서 단역을 맡은 뒤 이듬해 스타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드라마 '학교' 시리즈 중 '학교3'에 반항기 넘치는 학생으로 출연하



빌딩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10-68

며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신인답지 않은 카리스마로 단숨에 청춘스타 반열에 오르며 KBS 연기대상에서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는 같은해 방송된 MBC 시트콤 '뉴 논스톱'에 출연해 귀여운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극 중 조인성은 박경림과 자주 엮이는 캐릭터로 큰 인기를 모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스타가 된 후 조인성은 "뉴 논스톱은 지금의 조인성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 작품에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1년 조인성은 SBS 드라마 '피아노'에서는 양아치 이경호 역을 맡아 거친 매력을 선보이며 호평받았다. 함께 출연한 고수, 김하늘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냈다.

드라마에서 커리어를 쌓던 그는 2002년 영화 '화장실 어디에요?'로 스크린에 데뷔했고 그해 로맨스 영화 '마들렌'에서 신민아와 호흡을 맞췄다. 이듬해 영화 '클래식'에서는 손예진과 점퍼를 함께 쓰고 빗속을 뛰어가는,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아는 명장면을 남겼다. 이 영화를 통해 조인성은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이후 조인성은 드라마 '별을 쏘다' '발리에서 생긴 일' '봄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등과 영화 '비열한 거리' '쌍화점' '더킹' '안시성'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꾸준한 작품활동과 함께 수상경력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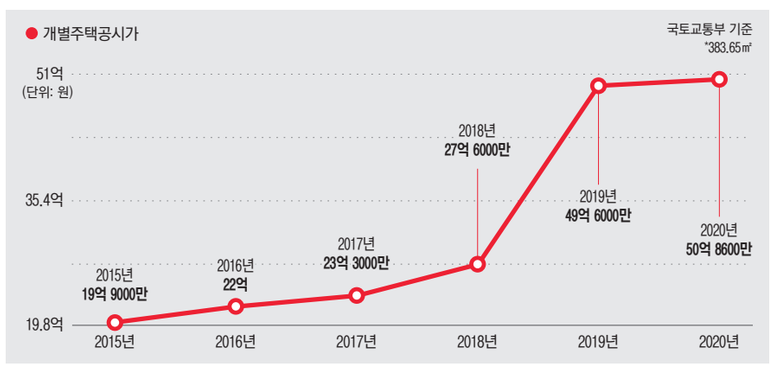
한편 조인성은 올해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간다. 먼저, 올해 개봉 예정인 류승완 감독의 신작 영화 '모가디슈'는 1990년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수도 모가디슈에 고립된 남한과 북한 대사관 공관원들의 탈출을 그린 작품이다. 조인성은 탁월한 기지를 지닌 참사관 역을 맡았다.

다음으로는 이달 25일 첫 방송되는 tvN 예능 '어쩌다사장'이다. '어쩌다사장'은 시골 가게를 덜컥 맡게 된 도시 남자들의 '시골 슈퍼 영업일지'를 담는다. 조인성의 첫 예능 도전으로 도회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가 시골의 슈퍼 사장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청자들의 눈길이 쏠린다.

이밖에도 조인성은 JTBC 드라마 '무빙'의 주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웹툰이 원작으로, 선천적으로 초능력을 가진 가족들이 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거대한 적들에 함께 맞서는 액션 히어로 대작이다.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직접 극본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2의 박인제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만일 조인성이 '무빙'에 출연한다면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이후 5년 만의 드라마 출연으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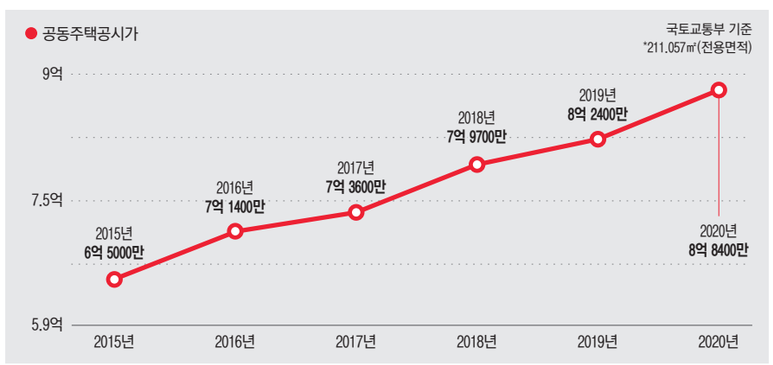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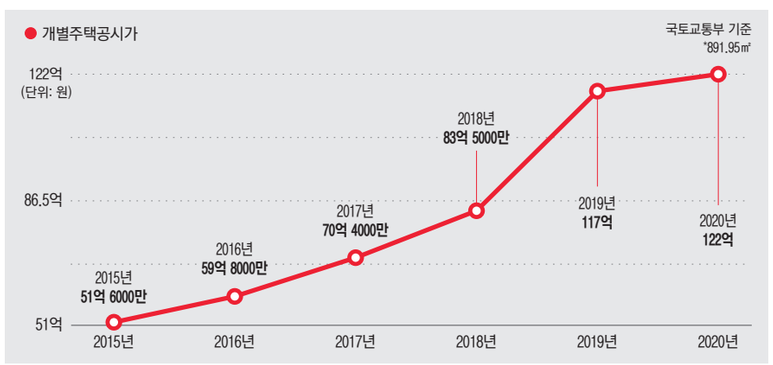
삼호이태원빌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93-3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문은상

현)신라젠 대표이사

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모스크바 제1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신라젠 대표이사로 일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개인 치과를 운영했으며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교수직을 역임한 의사





였다. 문 대표는 부산대 치과대학 교수 시절 부산대학병원 병리학교실에서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로 알려진 '펙사벡(Pexa-Vec)' 관련 논문을 접하고 펙사펙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해 당시 알고 지내던 의과대 교수들과 '신라젠'을 설립했다. 2013년부터 본업이었던 치과의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경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듬해 그는 투자자들을 모아 그해 미국 제약업체 제네렉스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나갔다. 이후 신약 허가의 마지막 단계로 불리는 글로벌 임상 3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라젠을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우영미

현)솔리드 대표이사, 패션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우영미 솔리드 대표이사는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에 입학하면서 의상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1983년 오사카 국제 패션 어워드에서 3등을 차지했는데 당시 아시아인 중 최고 순위로 화제를 모았다. 또 우영미 대표는 1988년에 남성복 브랜드 '솔리드 옴므'를 론칭해 남성복 디자이너가 된 한국 최초의 여성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변화가 없고 무미건조한 남성복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며 남성복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001년 한국패션협회 올해의 신인디자이너상, 2008년 제1회 코리아패션대상 대통령상, 2016년 매일경제 LUXMEN 기업인상 여성기업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패션 조합' 회원이 됐다. 이병헌, 강동원, 이민호 등 유명배우들이 우영미 대표가 디자인한 옷을 입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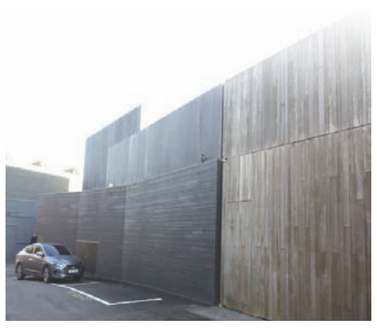


이부진

현)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다. 그는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CEO로 연세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삼성복지재단 기획지원팀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1998년 삼성전자 전략기획팀 과장, 2001년 8월 호텔신라 기획부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고속 승진을 거듭해 입사 15년 만인 2010년에 호텔신라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의 주력 사업인 면세점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이부진식 리더십'을 증명해냈다. 특히 2015년 7월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이랜드그룹 등의 유통 대기업과 시내 면세점 입찰 경쟁을 벌여 승리를 따내며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부진 사장은 재계 여성파워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코오롱글로벌

'자양 하늘채 베르' 내달 초 분양



자양 하늘채 베르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서울시 광진구

코오롱글로벌은 광진구 자양동 658-1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자양 하늘채 베르'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전용 46~59㎡ 총 165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6㎡ 51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자양 하늘채 베르는 자양동의 핵심 인프라를 모두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탁월한 입지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보거리에 2호선 구의역이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잠실,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도 10분 내로 도착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 자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자양초등학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학세권 입지를 누릴 수 있으며,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이 가깝다. 또, 뚝섬한강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의 랜드마크 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자양 하늘채 베르는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 구성도 선보인다. 소형 아파트로 공급에 나서면서도 공간활용을 극대화해 입주민의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것은 물론, 하늘채만의 공간 활용 옵션을 적용을 통해 입주민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하늘채만의 특화 아이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하늘채의 수납특화상품인 칸칸시스템(유상 옵션)이 도입돼 입주자의 입맛에 맞게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거실과 침실을 통합해 한쪽 벽면을 칸칸 오피스월로 구성하면 자유롭게 선반을 조정해 거주자에게 최적화된 홈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자양 하늘채 베르는 교통, 생활, 자연, 학군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입지를 누리는 희소성과 미래가치를 갖춘 소형 단지로 분양 전부터 1, 2인 가구를 비롯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면서 "탁월한 생활여건을 누리는 것은 물론, 알짜 소형단지로서 내부설계도 우수한 공간감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에 완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양 하늘채 베르의 홍보관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 엘에스타워 1층에 마련된다. 이달 19일 홍보관을 오픈하며, 3월 2일부터 청약을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1일 예정이다. 정당계약은 3월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단대동 행복주택' 준공 내달 20일부터 입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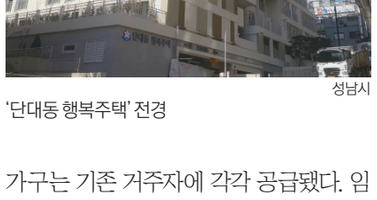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시유지 1342㎡에 '단대동 행복주택'을 준공해 3월 20일부터 60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단대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직접 건설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 지난해 9월 16일 마감한 청약에서 3.9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비 109억원(국비 18억원 포함)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4700㎡ 규모의 단대동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1개 동에 전용면적 16㎡ 24가구, 26㎡ 18가구, 44㎡ 18가구가 들어섰다.

이 중 27가구는 대학생과 청년층(만 19~39세), 17가구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1가구는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5가구는 기존 거주자에 각각 공급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월 8만 9250~27만원이다. 대학생, 청년층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단대동 행복주택' 전경

성남시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집값, 임대료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성남시 중점 시책의 하나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과 삼평동 2030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사업도 같은 취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